

양양강릉 등 동해안 5.3km 해변 보전 나서

-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연안침식관리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시 소돌해변에 이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침식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5.3km 길이의 해변은 6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소돌해변 등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식관리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번 침식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 (구간/길이/면적/내용) 양양 남애1리·원포, 강릉 지경·향호·주문진·소돌 / 5.3km / 13.086km² / 건축물 증축, 토지 형질변경, 토사 채취 등의 행위 제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침식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해변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침식 방지가 시급한 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식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식관리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연안침식 대응과 관리를 위해 함께 이행하는 참여형 계획이다.”라며, “참여주체들과 함께 침식관리계획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연안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980)
	항만연안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제 (044-200-5977)

□ **추진 배경 및 경과**

- 연안정비사업 위주의 사후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공간 관리**를 통한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 법제화(‘14.8)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리구역 7개소* 지정
* (‘15.8) 삼척 맹방·울진 봉평·신안 대광 (‘16.8) 삼척 원평·울진 금음·태안 꽃지 (‘21.12) 강릉 소돌

□ **지정 대상 및 절차**(연안관리법 제20조의2)

- (지정대상)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
* 침식 등 피해가 심각한 ‘핵심관리구역’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
- (지정절차)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 행정 기관 협의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

□ **지정 효과**(법 제20조의~제20조의9)

- (관리계획) 연안보전·이용·개발 실태조사, 침식원인조사, 침식방지·복구대책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 수립·시행 가능
- (행위제한) 건축물·인공구조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바다모래 채취 등의 개발행위 제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출입제한 가능

공간구분	제한원칙	제한되는 행위
핵심관리구역	원칙적 금지	- 건축물,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 바다모래, 규사, 토석 채취행위 -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완충관리구역	필요시 금지	- 상기행위 중 완충관리구역에서 발생시 핵심관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 (정비사업) 관리구역에 대한 연안정비사업 우선 시행

참고2**양양 남애1리 ~ 강릉 소돌해변 침식관리구역 개요**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원포 ~ 강릉시 지경·향호·주문진·소돌해변
- (면적) 총 13,086천m²

(단위: 천m²)

구분		전체	핵심관리구역	완충관리구역
전체		13,086	7,208	5,878
해역		13,053	7,208	5,845
육역	소계	33	-	33
	국·공유지	33	-	33
	사유지	-	-	-

- (침식피해)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B~C 등급*이나 '18 ~ '22년간 해빈폭 평균 2.1m 감소 및 단면적 평균 5.0m² 증가

< 실태조사 지구(6개소) 침식등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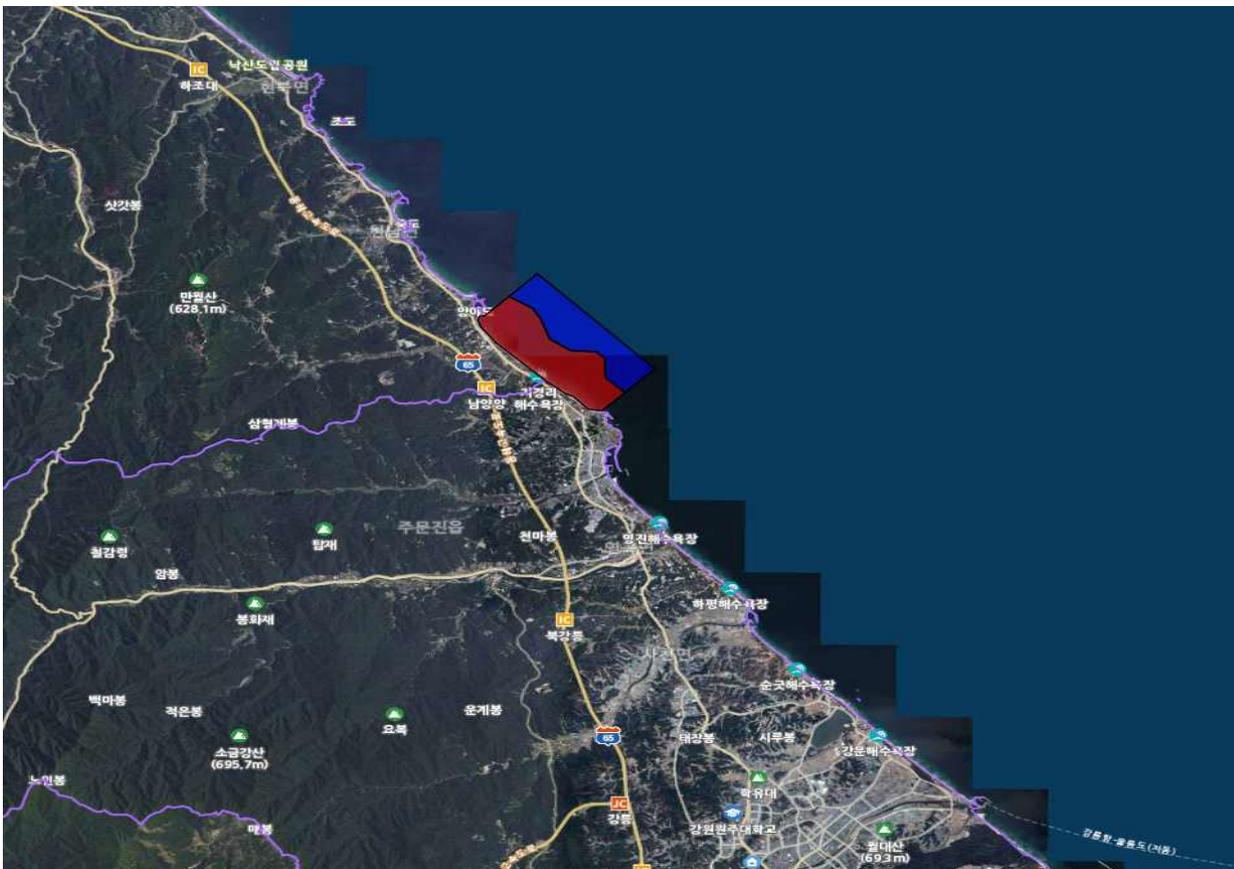
	남애1리	원포	지경	향호	주문진	소돌
'22	B	B	C	C	B	C
'21	B	B	C	C	C	C
'20	C	C	C	C	D	D

- (이용실태) 바닷가를 따라 군초소, 철책, 울타리가 있으며, 백사장은 해수욕장으로 배후지는 교육시설, 민가, 관광지 등으로 이용

○ 지정범위

- (핵심관리구역) 해역 최외곽지적선 및 해안선(포락지)으로부터 모래 이동 한계수심(12.94m, 50년빈도 설계파)까지의 구역, 육역 미지정
- (완충관리구역) 해역 남애1리 북측·소돌해변 남측에서 20m 등수심선을 수직 연결한 구역, 육역 최외곽지적선 내측 국·공유지

□ 위치(적색: 핵심관리구역 / 청색: 완충관리구역)



□ 추진경과

- 연안침식관리구역(안) 마련('21.11)
- 침식관리구역 지정 및 고시('21.1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33호)
- 관리계획(안) 마련('23.4 ~ '24.1)
- 양양 남애1리 ~ 강릉 소돌해변 침식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24.2)

참고3

침식관리계획 주요 내용(정밀조사, 연안정비사업)

□ 정밀조사

- (내용) 관리구역 전체 대상으로 조사 항목에 따라 연 1~6회 조사
 -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침식 발생 추이, 원인을 분석하여 침식 유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저감대책, 대응방안 수립 요청
- (활용) 최소 5년 이상 지속을 목표로 하되 취득 DB 정비·제공, 관리계획 성과 점검 시 활용 및 관련 업무 기초자료로 사용

□ 연안정비사업

- (사업개요) 규모: 이안제 40m×4기, 수중방파제 160m×1기, 돌제 100m×1기, 양빈 42,784m³ / 총사업비: 36,550백만원(국가시행)



- (단계별 시공) 침식이 심한 소돌지구를 시작으로 향호, 지경 순으로 시공하며 단일포사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 모니터링 병행
 - 침식관리협의회('23.下)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시공계획 수립
 - * 침식 정도와 어업활동을 고려하여 소돌해변 우선 시행 및 단계적 시공 요청

□ 침식관리협의회

- (목적) 침식관련 정보 공유, 연안정비사업 효율적 추진,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운영
 - (해수부) 연안 침식관리계획 이행 점검 및 총괄
 - (지자체) 침식 원인행위 제한, 침식 저감방안 검증 및 관리
 - (지역주민) 침식관리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